



안전의 기본으로 무재해 준공으로 간다

대아건설(주)천안백석지구3공구주공아파트현장



▲ 김상기 소장

이 침부터 일기에보가심상치않다.

잔뜩찌푸린하늘에서금세라도빗줄기가쏟아질것같은기세다.

서둘러 취재를 위해 천안 백석지구 3공구 주공아파트 현장으로 향했다. 이곳은 대아건설(주)김상기 소장가 한창 시공중이다.비가 올것같아 사진 촬영을 서둘렀다. 사진촬영 중에 비는 내렸지만 다행스럽게도 무사히 촬영을 마칠수있었다.

지난 4월 18일 효과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강력 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한 기업에게 주어지는 파이낸셜 뉴스 주관 '2003년 파인플러스 브랜드' 건설부문 대상을 수상한바있는 대아건설(주)현장 중 오늘 찾은 천안 백석지구 3공구 주공아파트 현장은 시공단계에서 CM건설기법과 책임감리를 적용하고 있는 현장으로 2002년 6월에 착공하여 2004년 5월에 준공예정으로 안전·고품질시공을 하고있는 곳이다.

대지면적 16,414평에 연면적 13,346평 규모로 아파트 6개동 398세대 및 주차장, 복지시설 등의 아파트 공사로 현재 공정을 20%, 안전시공을 바탕으로 더 살기 좋은 아파트, 더 가치 있는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땀을 흘리



고있다.

위험요소 Zero화로 무재해 지속

이 곳 현장은 골조공사가 확장형 발코니 및 화단공간으로 1~3층과 4층이상의 단 차이 및 절곡구조로 되어 있다. 때문에 이 부분에는 안전시설을 해도 위험요소의 잔존위험이 있어 세심한 안전시설물 설치가 필요하다.

이에 이 곳에서는 가설계확상 위험요소가 많은 갱폼의 외부비계 추가 설치, 호이스트 발판 보강조치, 낙하물 방지망을 4층부터 설치하였으며, 갱폼과 갱폼사이 간격은 법적 기준 20cm 이내보다 더 낮은 10cm 이내로 설치하고 있다.

이밖에 위험요소 Zero화를 위해서 계획된 현장운영으로 청결하고 정리·정돈된 현장 유지를 위한 집중 관리를 하고 있으며, 단계적인 공중 투입으로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확인과 개선을 생활화하고 있다.

안전관리비가 모자란 현장

현장의 안전을 위해 표준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사용토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많은 현장에서는 이를 이익으로 여겨 근로자 안전을 위해 투자를 아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곳 백석지구 3공구 현장에서는 안전관리비가 모자란다고 한다.

“건설현장에서의 표준안전보건관리비는 실행요소입니다. 시공에 따른 이익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김상기 소장은 이곳의 표준안전보건관리비 일체의 사용권한을 안전관리자에게 일임하고 있다. 안전관리자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며, 어떻게 지원해 주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적극적인 안전시설 투자 및 지원을 하다 보니 당초 계획된 것보다 초과 지출을 하게 된다고 하며, 그래도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투자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한다.

안전은 계획과 함께 이를 이룩하기 위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의지가 없으면 무재해의 길로 갈 수 없다고 김상기 소장은 강조하며, 우리가 안전을 위해 투자한 만큼 무재해 준공은 이루어 질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인다. 김상기 소장의 이러한 자신감 있는 마인드는 소장으로서 4년이라는 짧은 경력을 갖고 있으나, 18년이라는 짧은지만은 않은 현장 경험을 통해 쌓아온 마인드인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올해가 무재해 5배를 달성하고 있는 김상기 소장은 현장의 책임자로 근무하는 동안 철저한 안전관리로 단 한건의 사고도 없었다고 한다.

함께하는 안전활동

안전은 안전관리자만 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직원 및 작업자가 책임의식을 갖고 안전활동에 참여했을 때 안전은 보장받을 수 있다고 정순국 안전과장은 말한다. 정순국 안전과장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곳

현장에서는 참여식 안전활동이 인상적이다. 그 중 동 담당제도는 안전과 관련한 1차적인 위험요소 발굴 및 지원을 담당자가 수행하고, 최종 안전관리자가 추진하는 시스템으로, 함께하는 안전활동의 대표적인 예이다.

그 외 협력업체 소장, 반장급으로 이루어지는 점검반은 매월 1회 자율적으로 현장 순회점검을 실시한다. 이 때 지적된 사항은 즉시 소장에게 보고되고 안전관리자는 신속하게 개선 조치를 한다.

자율안전 정착을 위한 안전활동

최근 우리나라에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에도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에게 있어 국내 여건은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별도의 안전교육과 함께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근로조건을 개선해 주고 있다. 그 결과 이곳 현장에서는 내국인 근로자들보다 외국 근로자들이 안전모 등의 보호구 착용 및 안전수칙을 더 잘 지킨다고 한다.

이 밖에 곧 하절기를 접어들면서 고열 작업에 대한 우려를 대비해야 할 때 이곳에서는 작업자들이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편의시설과, 휴게소를 설치하여, 식수대, 식염수, 구급약품 등을 비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점차 고층화되는 건축물에서 추락의 위험이 커짐에 따라 철저한 대비를 한다는 계획이다.

김상기 소장과 정순국 안전과장을 비롯해 이곳 가족들의 최고 목표는 당연히 무재해 준공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처럼 안전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 아낌없는 투자로 무재해 준공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기본을 지키지 못해 재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정순국 안전과장의 말과 같이 기본으로부터 무재해 준공을 이루길 기원한다. 



〈최중덕 기자〉

